2024 고2 문학 미래엔

2024 고2 문학 미래엔 | 2(1)(1) 이생규장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생규장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기호를 활용해 특정 부분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작품의 각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 및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이생'과 '최 씨'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작품에 반복되고 있는 '만남-이별'의 구조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중략)

㉢밤 아홉 시가 되었을 무렵 최 씨가 나타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생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생은 이미 최 씨가 죽은 줄 알았으나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중략)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A]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중략)

부모님의 유해를 찾아 묻고 벼슬도 마다한 채 둘이 시를 지으며 행복한 몇 년을 보낸다. 어느 날, 최 씨가 울면서 이승의 시간이 다 되었다며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시를 읊으며 노래를 부른다. 이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리지만 최 씨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며 자취를 감춘다. ㉤이생은 그녀의 유해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 주고, 최 씨를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1. ㉠~㉤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소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이생 아버지는 봉건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② ㉡: 사랑하는 남녀 간의 절개를 중요시하는 시대상이 드러난다.
③ ㉢: 사건 진행이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다.
④ ㉣: 시의 주제는 이생과 최 씨의 영원한 사랑이다.
⑤ ㉤: 최 씨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다.

2. [A]에 나타난 최 씨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 씨는 좋은 집안에서 봉건주의적 여성으로 자란 인물이다.
② 최 씨는 남성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수동적인 성격이다.
③ 최 씨는 사랑에 있어 적극적이며,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진취적인 인물이다.
④ 최 씨는 외부 세계의 위협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인간 삶의 유한성을 보여 준다.
⑤ 최 씨는 외부 세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이는 자유로운 인간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A]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 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중략)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3. 글의 전개상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의 원인이 되며 작가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두 사람의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며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감상했을 때 봉건적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③ ㉢: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 인한 참혹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이생의 슬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⑤ ㉤: 최 씨가 죽은 줄도 모르는 이생의 모습을 드러내어 비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4. 최 씨가 이생에게 들려주는 말인 [A]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참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이 작품의 제목이 '이생규장전'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⑤ 최 씨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② 풍비박산(風飛雹散)
③ 단표누항(簞瓢陋巷)
④ 물아일체(物我一體)
⑤ 금슬지락(琴瑟之樂)

신유형

「이생규장전」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한자성어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에 활용된 어휘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에 활용된 삽입 시의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꼼꼼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

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나)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 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라)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마)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A]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무단배포금지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 김시습, 「이생규장전」

6. 윗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이 불타고 부모와 최 씨가 죽은 것은 그야말로 '흥진비래(興振悲來)'로군.
② 이생과 최 씨의 행복한 생활이 파국을 맞게 된 것은 '고진감래(苦盡甘來)'로군.
③ 이생과 최 씨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것은 부모에 대한 '맥수지탄(麥秀之嘆)'이로군.
④ 이생과 최 씨가 결국 헤어진다는 이야기의 내용은 '새옹지마(塞翁之馬)'로 설명할 수 있겠군.
⑤ 이생이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최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에서 최 씨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드러나는군.

7. 윗글의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행복한 결말을 암시한다.
② 독자에게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새로 추가한다.
④ 등장인물의 내면적 심리 및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⑤ 작품의 사건 전개에 있어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8.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국: 가문과 부모에 대한 효를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을 보면, 전통 윤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 같아.
② 민국: 비극적 결말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③ 영국: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오늘날의 연애 풍속도를 생각해 볼 때, 이생과 최 씨의 지극한 사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
④ 윤국: 현실 속 인간과 비현실적인 귀신의 사랑은 애초에 불가능해. 문학 작품은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
⑤ 진국: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 가사처럼 남자 주인공 이생도 여자 주인공 최 씨와 이별한 뒤에야 세상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u>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u>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죽은 최 씨가 환생하여 이생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하여 작품 내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한다.
② ⓑ: 최 씨와의 이별을 대하는 이생의 모습을 통해 운명 앞에 좌절하고 순응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③ ⓒ: 부모님의 유해 수습을 최 씨의 덕으로 돌리는 이생의 모습을 통해 절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 준다.
④ ⓓ: 최 씨의 마지막 부탁을 통해 그동안 이생이 최 씨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 최 씨가 갑자기 사라지는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자유연애 사상에 대한 지향을 보여 준다.

【10~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중략)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중략)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중략)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A]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

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10. [A]에 대해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한탄스러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이별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애달픈 분위기를 심화시킨다.

ㄹ. 주인공의 감정을 시적 화자의 감정에 일치시켜 이야기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ㅁ. 주인공이 겪은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1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작품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최 씨의 애달픈 심리를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④ 죽음을 맞은 최 씨의 상황이 비유적으로 드러나 비통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이별 후의 만남을 기약하며 절망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불교적 윤회관이 부각되어 있다.

1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물의 정서 표현에 효과적이다.
②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③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④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혼란을 주고 있다.
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작품 안의 서술자가 대화를 주도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독자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④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술 방식을 통해 결말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시'로 나타내어 이야기 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단배포금지

14.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생과 최 씨가 좌절된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기이한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이한 일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현실 너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지극한 열망에서 형성된 현실의 새로운 연장으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절개와 의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최 씨의 유교적 가치관은 이생과 이별하는 원인이 되었다.
② 최 씨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이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양하고 사랑을 쟁취할 수 있게 했다.
③ 전쟁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죽은 최 씨로 하여금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게 했다.
④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죽은 최 씨가 저승에서 돌아와 이생과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이어 갈 수 있었다.
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최 씨의 가치관이 이생과 세 번째로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작품의 사실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세계의 횡포에 의해 이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②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최 씨의 정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다.
③ ⓒ: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임과 동시에 최 씨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랑을 이뤘음을 드러낸다.
④ ⓓ: 이승과 저승의 절대적 거리감을 드러냄으로써 두 사람이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최 씨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6~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중략)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

학습자료의 모든 것 EBS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생과 최 씨가 수난을 겪고 있는 부분일 뿐, 절개를 중요시하는 시대상은 확인할 수 없다.

① ㉠: 이생의 아버지는 문벌의 차이를 이유로 이생과 최 씨의 사이를 반대하며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는 봉건적 사고관을 지닌 인물이다.

③ ㉢: 죽은 최 씨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사건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 이별을 앞두고 시를 읊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내용의 시를 읊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 최 씨가 떠나자, 최 씨를 그리워하다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을 통해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①

최 씨는 양가의 딸로서, 규문의 법도를 배우며 봉건주의적 여성으로 자란 인물이다.

② 최 씨는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이루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다.

③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를 통해 최 씨가 사랑에 있어 적극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으나, 최 씨는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진취적인 인물로 볼 수는 없다.

④ 홍건적의 난이라는 '뜻밖의 횡액'을 만나 죽게 되지만, [A]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A]에서는 최 씨가 외부 세계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3. 정답 ③

㉢: 배경 묘사를 통해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① ㉠: 이생과 최 씨의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며, 봉건적 사회 제도를 의미한다.

② ㉡: 이생과 최 씨의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며, 홍건적의 난을 의미한다.

④ ㉣: 죽은 최 씨가 귀신이 되어 등장하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일 뿐, 이생의 슬픔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 이생은 최 씨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의심하지 않고 있다.

4. 정답 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를 통해 최 씨가 스스로 사랑을 이루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를 통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적에게 죽은 최 씨를 통해 전쟁(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폐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에서 제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라는 최 씨의 말을 통해 봉건주의적 사회 질서에 맞는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②

Ⓐ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을 뜻하는 '풍비박산'이다.

①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와는 관련이 없다.

③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와는 관련이 없다.

④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와는 관련이 없다.

⑤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한자성어로 Ⓐ와는 관련이 없다.

무단배포금지

6. 정답 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를 통해 이생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최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을 뜻하는 '두문불출'로 표현할 수 있다.

① '흥진비래'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로 집이 불타고 부모와 최 씨가 죽은 것과 관련이 없다.

②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로 이생과 최 씨의 행복한 생활이 파국을 맞게 된 것과 관련이 없다.

③ '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로 이생과 최 씨가 부모의 장사를 지낸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새옹지마'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이상과 최 씨가 헤어진다는 이야기 내용과 관련이 없다.

7. 정답 ④

[A]는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 등 최 씨의 내면 심리 및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A]는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이 담겨 있다.

② [A]는 독자에게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A]는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A]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으나, 사실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8. 정답 ③

윗글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오늘날의 연애 풍속을 반성할 수 있다.

① 두 작품은 남녀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작품이다.

② 우리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

④ 문학 작품이 반드시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생규장전>은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죽음을 초월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생은 최 씨와 이별한 이후,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있으므로 최 씨와 이별한 뒤에야 세상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①

ⓐ: 최 씨가 환생하여 이생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로,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한다.

② ⓑ: 이별을 거부하는 이생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이생이 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 최 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 최 씨가 갑자기 사라지는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가 드러나 있으나, 이를 통해 자유연애 사상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0. 정답 ③

ㄱ. [A]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ㄴ. [A]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은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ㄷ.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이별을 암시함으로써 애달픈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ㄹ. 최 씨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야기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ㅁ. 주인공이 겪은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지 않다.

11. 정답 ⑤

세 번째 이별을 암시하고 있을 뿐, 이별 후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지는 않다.

① 삽입 시를 통해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작

품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은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을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은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을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④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에서 죽음을 맞은 최 씨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2. 정답 ④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을 뿐, 사건 전개에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다.
①, ②, ③, ⑤ [A]는 인물의 정서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정답 ①
설화적 기법을 활용한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달되고 있다.
③ 윗글은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다.
④ 윗글은 순행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삽입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을 뿐, 이야기 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14. 정답 ④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죽은 최 씨가 저승에서 돌아와 다시 이생과 부부의 인연을 이어간 것은, <보기>를 참고할 때 열망으로 인한 사랑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최 씨는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여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이생과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지만, 이는 <보기>와 관련이 없다.
② 최 씨는 이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있으며, <보기>와도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③ 최 씨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이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지엄하다고 말하며 최 씨가 저승으로 떠나게 되지만, 이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

15. 정답 ⑤
ⓔ: 최 씨가 아닌 이생이 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 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 역사적 사건인 홍건적의 난을 통해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홍건적의 난은 두 인물의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된다.
②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최 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작품의 제목인 '이생규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사랑을 이룬 최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으로, 이생과 최 씨가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②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요약적 진술을 통해 작품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① 윗글은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지 않다.
③ 윗글은 두 인물이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④ 윗글은 전기적 요소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물의 영웅적 면모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윗글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17. 정답 ⑤
Ⓐ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최 씨의 죽음을 의미하

무단배포금지